

오늘 '세계자살예방의 날'...광주·전남 현실 들여다보니

불황 그늘에 병든 마음 '안타까운 죽음' 급증세

올들어 광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의 절반 가량이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가 올해 1월부터 4월 30일까지 고의적 자해로 숨진 유족 97명을 대상으로 동기를 분석한 결과, 정신과적 문제 52.9%, 경제적 문제 49.4%, 육체적 질병 15.3%, 가정내 불화 14.1% 등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광주 244명, 전남 311명에 달한다. 한 달에 9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주에서 올해 1분기에만 135명이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84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광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은 2020년 326명, 2021년 380명, 2022년 358명, 2023년 377명 등으로 꾸준했다. 전남 역시 2020년 526명, 2021년 554명, 2022년 485명, 2023년 514명으로 2022년 다소 주춤했지만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광주시는 올해 초 "2022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25명을 기록해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지만, 이후 사망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올 상반기 광주 244·전남 331명 지난해보다 각각 26%·15% 증가 근근이 버티던 삶 벼랑 끝 내몰려 경제적 문제로 사망 급격히 늘어 고위험군 발굴 세심한 대책 절실

했다.

전문가들은 자살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코로나19 당시 시행됐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이 지난해 9월 종료된 데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에 대한 의지를 꺾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에서 정신과적 문제 39.8%, 경제적 문제 24.2%, 육체적 질병 17.7% 등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경제적 문제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자살예방센터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12일 오전 광주시 북구에서 A(여·73)씨와 B(여·53)씨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7일에는 광주시 서구에서 40대 부부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남편만 숨졌다. 식당을 운영했던 이들 부부는 '경영난과 대출 빚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에는 남편과 사별한 이후 홀로 아들 2명을 키우던 C(여·39)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1대1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고령 인구가 많은 전남도는 2021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한 고위험군 사례 관리와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위기개입팀을 신설해 자살 시도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경찰, 소방과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도연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은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위험 신호를 보인다. 이것을 지자체가 놓치지 않고 포착하면 자살률을 확실히 줄일 수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라며 "한정된 자원 안에서라도 고위험군을 발굴해내고 보살피는 등 세심한 개입과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전통시장·사회적 기업 명절 물품으로 정 나누세요

추석을 앞둔 9일 광주시 서구청 야외광장에서 한 시민이 전통시장 상인들과 사회적 기업의 명절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살인으로 변진 '업무상 불화'

광주서부경찰,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직장동료 살해한 50대 체포

업무상 불화로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9일 오전 10시 50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

동의 한 아파트의 현관문 앞에서 직장 동료인 5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 부위에 중상을 입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승용차를 타고 B씨 집을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이후 A씨는 범행 도구를 현장에 버려두고 승용차를 타고 북구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직장 동료 관계로, 오랫동안 같이 일하면서 막역하게 지냈으나 업무 과정에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무상 불화가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구체적인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여학생 20여명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들어

고교생 검찰 송치...광주경찰 "검거보상금 지급...적극 신고" 당부

같은 학교 출신 여학생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Deepfake·불법합성물)' 수법으로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고교생인 10대 A군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신과 같은 학교를 나온 여학생들의 SNS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에 합성한 후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이 제작한 딥페이크 음란물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7명의 신고를 토대로 A군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등을 활용해 총 20여 명에 대한 딥페이크 성착취 사진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8건의 허위 영상물 사건을 수사해 4건에 대한 혐의를 확인해 10~20대 피의자 5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송치된 이들은 SNS 등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사진을 확보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일부는 인터넷 게시판에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영상물 범죄 근절 TF'를 구성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보호 및 지원 등 종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해 기존 검거보상금 제도를 활용해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시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동네 이웃에 흉기 휘두르고 도주 화순경찰, 60대 추적 나서

화순에서 동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가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화순경찰은 6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남 오전 9시께 이웃 주민인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흉기에 등과 허벅지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인 A씨가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B씨의 고추밭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A씨와 B씨 외에도 동네 주민 2명이 더 있었지만 범행 상황을 보지는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야산으로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33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후 6시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추적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